

기억해야 할 역사의 현장

대정읍 서남쪽 해안지역은 푸른 바다와 오름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현장이다.



최남단해안로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38-1 ~ 대정읍 상모리 138(약 5.9km)

송악관광로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396-1 ~ 대정읍 상모리 133-3(약 4.3km)

비행장로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841-18 ~ 대정읍 하모리 388-3(약 1km)

송악관광로143번길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733-4 ~ 대정읍 상모리 811-1(약 2.2km)

하모백사로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28-9 ~ 대정읍 하모리 413-6(약 0.8km)

최남단해안로 | 우리나라 최남단

최남단해안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해안도로이다. 이 길은 송악산 입구에서 형제해안로와 만나 송악산과 알뜨르 비행장, 하모해수욕장을 거쳐 모슬포항까지 이어진다. 최남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 땅인 마라도로 가는 배를 타는 길목이기도 하다. 막힘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오름이 어우러지는 경관에 탄성이 나오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잊지 말아야 할 근현대사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송악관광로 | 송악산과 갯도진지

송악관광로는 상모리에서 송악산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송악산(松岳山)은 마그마와 바닷물이 만나는 격렬한 폭발로 생긴 오름이다.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성질의 화산활동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절벽에서 볼 수 있는 층리는 물과 마그마가 반응해서 화산재가 쌓이면서 생긴 것이고, 분화구에서 볼 수 있는 검은색의 송이는 땅 속의 마그마가 그대로 분출되어 굳은 돌이다. 그래서 화산활동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기 위한 좋은 연구대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송악산 갯도진지

송악산의 이름은 소나무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도 하고, 송이에서 따왔다고도 한다. 제주어로는 절ული오름이라고도 부르는데 바닷물결이 절벽에 부딪치며 울린다는 뜻이다. 송악산은 바다로 툭 튀어 나와있는 지형이라 주변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송악산 입구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동쪽을 바라보면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이 한눈에 들어오고, 송악산 절벽에 마련된 전망대에서는 멀리 가파도와 마라도를 감상할 수 있다.

송악산은 자연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다. 송악산 절벽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만든 갯도진지가 남아있다. 제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이 갯도진지는 지역 주민들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되어 만든 동굴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세에 몰리자 제주를 마지막 결전지로 삼았다. 그래서 제주의 오름에 동굴을 뚫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군사시설을 설치했다. 해안가에 있는 갯도진지에서는 연합군이

제주에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뢰를 타고 적의 전함에 돌진하는 자살특공대를 운영하기도 했다. 다행히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제주가 전란에 휩쓸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송악산은 드라마 대장금 촬영지로 더 유명해졌다. 하지만 송악산의 갱도진지는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게 해준다.



알뜨르 비행장

비행장로 | 알뜨르 비행장

갱도진지와 더불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유적인 알뜨르 비행장은 모슬포에서 **비행장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만날 수 있다. 이 비행장은 송악산 갱도진지와 함께 전쟁을 위해 만든 군사시설이다. 당시 일본은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을 폭격하기 위한 지리적 요충지로 제주도를 주목했다. 제주에서 출발하면 일본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기름이 덜 들어 비행기에 폭탄을 더 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평야지대인 알뜨르에 비행장을 건설했다. 50여개의 격납고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비행기가 이곳을 드나들었다. 현재는 10여개의 격납고가 남아있어 과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송악관광로143번길 | 백조일손지묘

송악관광로143번길에 있는 사계공동묘지에는 백조일손지묘가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 예비검속의 바람이 불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섣달오름으로 끌려가 희생되고 말았다. 4·3사건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제주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슬픔을 마주하고 만 것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당시에는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고 7년이 지나서야 겨우 시신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미 누가 누구인지 형체를 알아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유족들은 이곳에 묘를 만들고 ‘백 명의 조상의 하나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백조일손지묘라는 묘비를 세웠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는 이렇게 제주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도 녹아 있다.

하모백사로 | 하모 해변

하모백사로는 하모리 백사장의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송악산 서쪽으로 이어지는 최남단해안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하모 해수욕장에 도착하게 된다. 하모해수욕장은 수심이 얇고 소나무 방풍림이 조성되어 있어 주변경치가 아름답다. 함덕이나 이호, 화순 해수욕장과 같이 유명세를 타지 않아 사람들의 왕래가 적지만, 조용한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풍경과 한적한 해변의 여유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하모해수욕장